

文대통령, 한중일 관계 복원

시진핑과 “대화 모멘텀 유지” 한목소리

아베와는 수출규제 문제 해결의지 확인

제8차 한중일 정상회의의 참석차 중국을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은 1박 2일간의 일정을 마무리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23일 베이징(北京)에서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한 데 이어 다음날 청두(成都)에서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와 의 정상회담, 한중일 정상회의에 임하는 등 강행군을 했다.

우리는 일정이란 지적도 일각에서 나오지만 문 대통령은 중국·일본 정상과 만남을 밀도 있게 소화하며 의미 있는 성과를 거뒀다는 평가가 가능해 보인다.

한중 정상은 한목소리로 북미 간 비핵화 대화 모멘텀을 유지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한중이 함께 북한을 향해 무력시위의 자제를 촉구하고 나선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미국에 새 계산법을 내놓으라며 북한이 제시한 ‘연발 시한’이 다가오는 가운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실제로 도

발을 감행해 ‘레드라인’을 넘는다면 동북아 정세가 격랑으로 빠져드는 것을 우려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문 대통령으로서는 남북 간 직접 소통이 여의치 않은 상황에서 북한의 뒷배를 자처하는 중국을 통해 ‘대화 기조’를 재확인함으로써 비핵화 대화의 진전 가능성을 타진하는 ‘촉진지역’에 일정 부분 성과를 거둔 것으로 보인다.

주목할 부분은 회담에서 한중 정상이 최근 중국과 러시아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에 제출한 대북제재 완화 결의안을 논의했다는 점이다.

문 대통령은 같은 날 오후 청두에서 열린 리커창(李克强) 중국 국무원 총리와 의 회담에서 ‘동아시아철도공동체’ 구상도 언급했다. 이는 결국 북한이 가장 관심을 두고 있는 제재완화와 관련한 문제를 한중이 협의할 수 있다는 점을 보이면서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유도하는 효과를 가져다

줄 것이라는 점에서 더욱 관심을 끈다. 한일정상회담에서 문 대통령과 아베 총리는 일본 수출규제 등 양국 현안을 대화를 통해 해결해나가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 이후 양국 관계가 갈등을 거듭해온 가운데 두 정상이 15개월 만에 공식 회담을 갖고 대화 의지를 확인했다는 점은 의미 있는 성과라고 볼 수 있다.

아베 총리는 “우리는 이웃이고 서로의 관계가 무척 중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자”고 말했다고, 문 대통령은 “이번 만남이 양국 국민에게 대화를 통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희망을 주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답했다고 청와대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두 정상은 회담에서 ‘조건부 연장’ 상태인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에 대해서도 논의했지만 구체적인 발언 내용은 전해지지 않았다.

지소미아는 일본의 수출규제 문제와도 맞물려 있기 때문에 앞으로 양국의 수출규제 실무 협의의 진전에 따라 지소미아 최종 연장 여부가 좌우될 전망이다. 그러나 두 정상은 이날 회담에서도 양국 갈등의 근본 원인인 강제징용 해법에 대해서는 서로의 입장만을 확인한 채 구체적인 진전을 보지 못했다.

문 대통령과 리 총리, 아베 총리는 24일 한중일 정상회의를 마친 뒤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공동의 노력 등 3국의 미래 공동번영을 위한 전략 등을 담은 ‘향후 10년 3국 공동비전’을 채택했다.

공동비전에는 “한반도와 동북아에서의 평화 및 안정 유지가 공동의 이해와 책임이라는 점을 재확인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연합뉴스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이 시뮬레이션된 25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이야기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 성탄절에도 필리버스터 대치 이어가

‘홍남기 탄핵소추안 폐기시한’ 고려해 본회의 27일 열듯

여야는 성탄절인 25일에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대치를 이어갔다.

이번 임시국회 회기는 이날 밤 12시에 종료됐다. 자유한국당이 신청한 필리버스터도 국회법에 따라 이때 자동으로 종결됐다.

더불어민주당이 소집을 요구한 새 임시국회는 26일 다시 시작된다. 본회의 개의와 선거법 표결은 27일 진행될 것이라는 전망에 무게가 실린다.

한국당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해 발의한 탄핵소추안 표결 시한이 26일까지이기 때문이다. 한국당은 홍 부총리가 ‘4+1’(민주당·바

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 예산안 심사에 협조해 정치적 중립을 어겼다며 탄핵소추안을 발의했고, 이안건은 지난 23일 본회의에 보고됐다.

국무위원 탄핵소추안은 본회의 보고 후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무기명 투표로 표결해야 하기에 26일 본회의가 열린다면 표결을 피할 수 없다.

민주당은 이를 고려해 27일 본회의를 여는 방안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필리버스터 정국 긴장이 한껏 고조된 만큼 하루 정도 ‘열을 식힐’ 시간을 둔 뒤 선거법 표결에 들어가는 게 좋을 것이라는 판단도 있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의장단도 필리버스터가 이어지면서 피로가 쌓여있어

전체적으로 하루 휴식을 취한 뒤 본회의 개의와 선거법 표결을 할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중”이라고 말했다.

다만, 상황에 따라서는 ‘4+1’ 협의체가 26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선거법 표결에 들어가는 ‘속도전’을 벌일 가능성도 있다.

선거법 표결 처리가 눈앞으로 다가오면서 여야의 기 싸움은 치열해지고 있다. 한국당이 신청한 선거법 필리버스터에 민주당과 정의당 의원들도 찬성 토론으로 맞불을 놓으면서 국회 본회의장은 24시간 불을 밝히는 중이다.

필리버스터가 계속되는 가운데 본회의장에서는 토론자로 나선 의원뿐 아니라 자리에 앉은 의원들이 의사진행에 항의 표시를 하면서 때때로 고성이나 내기도 했다. /연합뉴스

정인화, 광양 CCTV 특별교부금 10억 확보

정인화 의원은 (광양·곡성·구례·사진)은 25일 광양시 관내 교통안전 CCTV 설치를 위한 행정안전부 특별교부금 10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특별교부금은 통학로 내 과속 단속, 광양시와 타 시도간 경계 범죄 차량번호판 인식용 CCTV 설치에 사용될 예정이다.

정 의원은 지난 11월18일부터 21일까지 3일간 광양시 관내 21개 초등학교의



정인화 의원

통학로 안전상황을 현장점검했고, 지난 12월12일 광양 백운초등학교에서 ‘광양 안전한 어린이 통학로 만들기 대토론회’를 열어 통학로 교통안전현장민원을 접수한 바 있다. /김진수기자

총선 브리핑

광산을 민형배, 검찰 조국 구속영장 청구 비판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을 예비후보는 “검찰이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 거 같다”며 검찰의 조국 전 법무부장관 구속 영장 청구를 비판했다.

민 예비후보는 검찰 국가를 위한 자신들의 욕망이 유일한 정의인 것처럼 착각하고 있다며 이는 대통령을 선출한 주권자에 대한 모욕이라고 지적했다. 또 먼지털기식 수사를 보이고 있다며 검찰이 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와 관련해 “단 한 사람이라도 떼뻗할 수 있을까”라며 되물었다.

그는 검찰 부마 의혹 관련 검찰 수사에선 조 전 장관이 적극적으로 답변했는데 “영장이 이런 상황에서 받아들여진다는



민형배

게 말이 안 된다”며 26일 서울동부지법에서 구속영장이 기각될 것이라고 바라봤다.

민 예비후보는 시간이 흐를수록 검찰 개혁의 절실함을 스스로 확인 시켜주고 있다며 현 상황은 “대한민국 검찰 스스로 써 내려가는 검찰의 흑역사, 타락사”라고 평가했다.

한편, 민 예비후보는 유튜브 채널 ‘민형배 TV’와 별도로 구독자 21만8천여명을 보유한 유튜브 ‘세날’의 파란남자들 코너에 매주 월요일 고정 출연하고 있다. /김대이기자

서구갑 김명진, 성탄 맞아 아동양육시설 위문

김명진 대안신당 광주 서구갑 예비후보는 24일 오후 광주 남구 송하동 아동양육시설 ‘신애원’을 방문해 성탄을 맞은 원생들을 격려했다.

김 예비후보는 어린이들과 캐롤송을 함께 부르고 놀이를 함께 하면서 성탄의 기쁨을 나눴다.

(우)서영봉사단과 함께 방문한 김 후보는 신애원의 각종 치유·놀이시설을 둘러보고 자원봉사로 근무하고 있는 상담선생들과 ‘치유와 회복’에 대해서 토론했다.

김 예비후보는 “부모를 떠나 마음의 상처가 있을지도 모를 어린이들이 박수치고 노래 부르는 모습을 보면 행복해 진



서구갑

다”며 “긍정적 사고와 건강한 심신을 유지하며 당당한 어린이들로 성장하기를 기원한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신애원 산타 방문행사를 6년째 계속해오고 있다.

김 예비후보는 22여 년간 청와대 행정관, 대통령직 인수위, 여야정당, 국회, 기업 등 국정전반을 경험하고 당대표, 원내대표, 비서실장과 특보를 6번 경험한 의정사상 특별한 경력으로 국회전문가로 평가받고 있다. /김대이기자

동남을 이병훈, 동계마을 사랑채 방문 인사

이병훈 더불어민주당 광주 동남을 예비후보는 24일 동계마을사랑채를 방문해 마을어르신, 청년들과 함께 아침식사를 함께 나눴다.

동계마을사랑채는 지난동 동계마을 일원의 주민들이 마을을 가꾸고 경제생활을 영위하며 이웃과 교류하는 공동체 마을을 만들기 위한 주민공간이다. 어르신과 청년의 세대간 소통을 비롯해 주민의 공동체 활동을 위한 공유사랑방이다.

이 예비후보는 “지산동의 동계마을은 오지호 화백, 문병만 시인, 이한열 열사의 생가가 지척의 거리에 놓인 광주 역사의 살아있는 장소”임을 강조하고 “이를 토대



이병훈

로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들을 마련하고 스토리텔링을 통해 광주의 명품마을로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산동-아시아문화전당-원도심’을 잇는 문화관광벨트를 조성해 광주의 대표적인 관광지역으로 가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예비후보는 건전한 마을공동체가 고유의 문화를 살려내고 마을의 가치를 높일 것으로 전제하고 “도시를 재생하고 골목상권을 살리는 지름길은 결국 마을공동체의 회복이다”고 강조했다. /김대이기자

전현직 시의원 32명, 북구갑 조오섭 지지 선언

전·현직 광주시의원들은 24일 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오섭 광주 북갑 예비후보는 ‘광주의 힘’이 되어 일하는 국회를 만들고, 정의롭고 공정한 나라 지역이 강한 대한민국을 만들 것이다”며 지지를 선언했다.

지지선언에 참여한 전·현직 광주시의원들은 6대(나종천·박인화·송경중·윤봉근·정병문·정현호·허문수), 7대(김민종·김영남·문태환·박춘수·서미진·김민호·유정심·조세철·조영표·주경남), 8대(김광란·김동찬·김용집·김점기·박미정·신수정·이경호·이정환·임미란·장재성·정무창·정순애·조석호·최영환·황현



조오섭

택) 등 총 32명이다. 이들은 “문 대통령의 부름을 받아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대변인으로 활동하며 국가균형발전 전문가로 성장한 광주의 인재다”고 밝혔다.

또 “중앙정부와 다양한 인적 네트워크를 형성해 중앙과 지역을 잇는 소통창구를 해낼 준비가 돼 있는 조오섭 예비후보가 촛불혁명을 완성시켜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시민의 많은 지지와 응원을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김대이기자

북구갑 정준호 “각화동 농산물시장 이전 추진”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광주 북구갑 예비후보는 각화동 농산물 도매시장을 이전하겠다는 정책을 밝혔다.

정 예비후보는 25일 “지난 1991년 문을 연 각화도매시장은 30여년의 세월 탓에 시설 노후화, 저온저장시설 부족, 주차장 협소 등으로 상인과 시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며 “광주 시민의 농산물 공급기지 역할을 하고 있는 각화도매시장에 대해 대체부지 확보해 이전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각화동 농산물 도매시장 시설현대화는 2008년에도 추진됐으나 여러 번수가 발생하면서 2011년 사업이 취소돼 국비



정준호

가 전액 반납된 바 있다.

정 예비후보는 주변 재개발로 교통체증이 가중될 수밖에 없는 만큼 이전사업을 더는 늦춰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화물터미널이나 변전소가 적합하지 않다는 판단이 내려졌는데도 대체부지 확보가 여전히 제자리 걸음이다”며 “지역민의 숙원사업인 만큼 광주시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확장 이전할 수 있는 부지를 조속히 확보해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김대이기자

서구를 이남재, 자유한국당 비례의석 품수 비판

이남재 더불어민주당 광주 서구를 예비후보는 25일 보도자료를 통해 “자유한국당의 비례한국당 창당은 ‘꼭두각시 위성정당’”이라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선거법을 끝까지 반대했던 자유한국당이 24일 ‘비례한국당(가칭) 창당’ 카드를 공식화했다.

이 예비후보는 “자유한국당이 지역구 투표는 자유한국당 후보들을 찍고, 정당투표는 비례한국당에 투표하도록 유도하고, 선거가 끝난 뒤 합당하는 방식으로 지역구와 비례의석을 모두 취하겠다는 품수를 부리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남재

또한 이 예비후보는 “‘비례한국당 창당’은 정치개혁을 후퇴시키는 것을 넘어 헌법적 가치를 무시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 예비후보는 “국민의 요구는 공감도 감동도 없는 필리버스터와 사사건건 고발이 아닌 국회에서 제 할 일을 하라는 것이다”며, “자유한국당은 ‘비례한국당’이라는 품수 그만부리고, 정치개혁에 지금이라도 동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대이기자

전현직 시구의원 29명, 광산갑 이용빈 지지 선언

전·현직 광주시구의원 29명은 25일 “이용빈 광산갑 예비후보와 함께 ‘더 나은 광산, 더 밝은 광주, 더 강한 대한민국’을 만들어나갈 것”이라며 지지를 선언했다.

윤봉근 전 광주시의회 의장을 비롯해 허문수 전 광주시의원, 광산구의회 김순철, 나장식, 박석원, 김인원, 김명수, 정병재 전 구의원이 참여했다.

광주시의회에서는 장재성, 김학실, 황현배, 이경호, 최영환, 정순애, 김점기, 반재신, 신수정, 김나윤, 정무창, 김광란 시의원 등 12명이 동참했다. 광산구의회는 공병철, 조영임, 강장원, 이귀순, 김태완,



이용빈

윤혜영, 박현석, 박경신, 김재호 구의원 등 9명이 함께했다.

전·현직 광주시구의원은 지지선언문을 통해 “윤봉근은 정치를 해온 이용빈 후보만이 적폐정치와 정치공해를 과감히 도려낼 수 있다”면서 “광산구의 발전을 위한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고, 기후위기와 일자리 문제, 사회적 불평등을 동시에 해결할 ‘황룡강 르네상스 시대’로 이끌 통찰력 있는 리더십을 겸비한 경제 전문가다”고 지지를 호소했다. /김대이기자

주철현 “여수시 권역재활병원 본격화 환영”

주철현 더불어민주당 여수갑 예비후보가 여수시의 ‘전남권역 재활병원 사업 본격화’ 발표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발표했다. 주 예비후보는 24일 환영 논평을 통해 지난 23일 여수시가 전남권역 재활병원 사업의 본격 추진을 위해 내년 10월까지 실시할 계몽역을 진행하고, 11월 착공해 2022년 11월 준공할 계획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주철현 후보가 민선6기 여수시장으로 재임 할 때인 2017년 보건복지부 공모사업에 선정 된 후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국·도비 확보에 힘썼던 사업이다. 이후 민선 7기 권오봉 시장 들어 정부는 출범 후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의



주철현

결하고, 사업비를 270억원에서 458억원으로 늘렸다.

주 예비후보는 대학병원 유치를 위해 뛰었지만 현실적 여건이 여의치 않아 재활병원을 유치로 선회하고, 응급의료센터와 심혈관센터 등 의료서비스를 추가해 준 대학병원 급으로 키울 계획이었다. 주 예비후보는 “전남권역 재활병원이 준공되면 지역 의료서비스가 한 단계 올라가 시민들이 더 행복한 여수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 /임재만기자

북구를 전진숙 “뗏다방 비례한국당 발상 치졸”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북구를 예비후보는 25일 “자유한국당은 자신의 기득권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다. 정치사에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뗏다방 정당’인 ‘비례한국당’을 건설하겠다는 발상은 상식이 있는 정치인들이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것”라고 비판했다.

전 예비후보는 “민주주의 꽃은 선거라고 한다. 선거를 통한 투표행위는 기존 정당들의 의정활동을 평가하는 신성한 국민들의 의사표현 행위인 것이다. 그런데 한국당은 이러한 신성한 투표행위를 왜곡하는 ‘뗏다방 유사정당’을 만들어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려는 치졸한 행



전진숙

위를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전 예비후보는 “한국당을 비롯한 적폐세력을 정치적으로 청산하는 것이야말로 다가오는 내년 2020년 총선의 최대과제가 되고 있는 것”이라고 피력했다.

이어 “한국당은 스스로의 무덤을 파는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며 “지금이라도 정신을 차리고 민의의 정당인 국회로 돌아가 국회의원의 본분을 다하기 바란다”고 자성을 촉구했다. /김대이기자